



## 부산 산업보건의 신성(新星), 남부산산업보건센터



김중환 센터소장

편집실

서울에서 KTX로 2시간 40분, 부산역에 도착했다. 서울에서 부산 거리가 짧아진 만큼 계절도 여름으로 성큼 다가선 느낌이다. 마침, 해운대에서 '2016 해운대 모래축제'가 한참이다. 해운대에 들러 모래들의 향연과 해변의 뜨거움을 잠시 맛봤다.



이성훈 원장

남부산산업보건센터로 가는 길에 을숙도를 만났다.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인 을숙도. 지난겨울, 뉴스에서 본 을숙도를 찾은 고니가 기억난다. 을숙도대교를 지나 남부산센터를 찾았다. 남부산센터는 명지경제자유지역을 근거리에 두고 있고 녹산국가산업단지를 마주보고 있다. 녹산산업단지는 부산의 물류 및 산업기반 강화를 위해 조성한 해안 매립 평지이다. 1999년에 1단계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2004년 입주를 완료한 이 단지는 총 1,478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2만 8,642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건강진단팀

신영식 사무국장



운영지원팀(왼쪽부터 이광재 팀장, 신영식 사무국장, 오재훈 대리, 장미현 사원)



정일용 건강진단팀장

남부산센터는 2012년 부산산업보건센터에서 독립한 '젊은' 센터이다. 2012년 일반·특수건강진단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을 받았다. 남부산센터는 명지오션시티 빌딩에 입주해 있는데, 4층부터 6층을 사용하고 있다. 4층은 건강진단 공간이고 5층은 운영지원팀과 건강진단팀이 사용하고 있고 6층은 보건대행팀과 환경위생팀이 자리 잡고 있다. 남부산센터는 총 63명이 근무하고 있다.

우선 남부산센터의 소중한 고객에 대해 물어보았다. 정일용 건강진단팀장은 (주)정산인터내셔널(부산시 송정동)을 손꼽았다. 정산인터내셔널은 섬유 소재 제조업체로 자동차 내장재, 산업용 자재, 신발용 자재와 첨단 섬유 신소재를 개발·생산하고 있다. 이유를 물어보니, 정 팀장이 협회에 입사한 1991년 이전부터 협회와 인연을 맺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30여 년을 함께 한 만큼 서로가 필요





환경위생팀



탁은길 환경위생팀장

로 하는 부분을 잘 안다고 했다. 적어도 정산인터내셔널에게 남부산센터는 사업장 주치의인 것이다.

오랜 시간을 함께 했다는 이유 말고 많은 사업장에서 남부산센터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배은주 보건관리팀장은 '찾아가는 서비스' 라고 했다. 사업장에서 요청하는 산업보건관련 서비스가 있으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바로 찾아간다고 했다.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것이 전화상으로 친절하게 상담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그리고 배 팀장은 활력이 넘치는 '젊은' 협회 구성원이 남부산센터의 강점이라고 했다. 배 팀장은 사업장에서 반기는 직원, 건강뿐만 아니라 미소까지 챙기는 직원들이 자랑스럽다는 말을 아까지 않았다.





보건관리팀

배은주 보건관리팀장



조선업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들려온다. 남부산센터의 앞으로 계획을 물어보았다. 탁은길 환경위생팀장은 앞으로의 '어려움' 보다 남부산센터의 다가오는 '기회'에 대해 말해 줬다. 남부산센터는 2012년 개설 이후로 10% 이상의 꾸준한 성장을 해 오고 있으며, 무엇보다 가까운 거리에 녹산국가산업단지뿐만 아니라 화전일반산업단지, 미음일반산업단지,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가 있다고 했다.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지만, 4개의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남부산센터가 책임지고 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부산센터는 2012년부터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안전보건공단, 한국노총 등과 공동으로 근로자 건강을 위해서 '산업안전합동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에는 90여 명의 사업장 안전보건담당자들과 '화학물질재해 제로 원정대'라는 이름의 '밴드'를 만들어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펼치고 있다.

남부산센터는 '오늘' 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센터이다. 남부산센터가 부산 도심과 많이 떨어져 있어 직원들이 출퇴근하기가 만만치 않다. 신규 인력 채용 또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간다면 남부산센터는 협회 역사에 새로운 성공신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9로 21(4~6층)  
전화 : (051)710-6888 ☎